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중심으로-

Economic Impact of Andong Maskdance Festival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이지석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Ji-Seok Lee(jiseok@semyung.ac.kr)

요약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의 총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2009)에서 직접조사를 통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산업승수(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로 안동지역에 미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축제기간중 방문객의 총 지출액인 237억 5천 만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09억 6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수입유발효과는 1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보편적인 문화유산인 '탈'이라는 컨셉을 잘 살린 축제기획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 중심어 : | 지역축제 | 산업연관모델 | 경제적 파급효과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2008 Andong Maskdance Festival, using an Input-Output(I-O) model. For the research,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was used, which makes it easy to grasp the economic impact of the tourism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in Andong. Based on the regional I-O transactions tables which were developed by Bank of Korea(2009), the industry multipliers were derived with respect to output, income, and value-added. The results show that in 2008 Andong Maskdance Festival receipts generated output impact of 30,961 million won and 15,800 million won of income impact, 14,310 million won of value-added impact, respectively. I think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objective indicator to help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gional festival policies for the local government.

■ keyword : | Regional Festival | Regional Input-Output Model | Economic Impact | Andong Maskdance Festival |

I. 서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

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자원 등 유·무형의 자원들이 이용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업과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지역축제 개최로 관광객이 유입되면 관광객의 지출효

* 이 연구는 2010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접수번호 : #100907-004

접수일자 : 2010년 09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2일

교신저자 : 이지석, e-mail : jiseok@semyung.ac.kr

과와 지역의 소득증대효과,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 등이 발생한다.

축제(祝祭, festival)는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 축제는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거의 퇴색되었다. 축제의 고정(固形)인 제천의례(祭天儀禮)는 농공시필기에 하늘에 제사지낸 후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읍주가무하며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축제를 Fallassi(1987)는 '현대 영어의 관점에서 특별한 날로 표시되는 세속적인 어떤 기념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다. Getz(1991)는 축제를 '공공적이며 테마를 가진 양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그 자체와 전통 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화행사로 보았다[1]. 야은숙(1997)은 축제를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벌이는 제사이고 잔치이며 놀이'라고 했다[2].

1997년부터 시작된 안동탈춤페스티벌은 한국내 1천여개 축제중에서 전국최우수축제 및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탈은 한자로 '거짓 가(假), 얼굴 면(面)'으로 가짜 얼굴이란 뜻이다. 우리말로는 '탈, 탈바가지, 초라니'라 불렸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탈'로 부르고 있다. 1997년 제1회 축제의 세입규모는 5억 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12년이 지난 2008년 축제의 세입규모는 5.8배 이상 증가하여 32억 4천만원에 달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회마을과 낙동강변축제장 일대에서 열린 "2008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번 행사는 하회탈춤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신성한 탈로 간주되는 '각시의 꿈'을 주제로 선정하여, 국내의 전통 탈춤 및 공연, 안동문화재 현장 축제, 민속놀이마당 등 600여개의 주요 행사가 펼쳐졌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활용한 지역산업연관표는 연구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09)에서 발간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고,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투자지출액과 방문객 지출액을 추정하며, 도출된 유발계수와 총지출액을 고려하여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산업연관모델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분석을 통해 노동,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재의 투입과 산출에 따른 산업간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산업간 또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3].

관광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관광승수를 비교분석하거나 지역축제와 문화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충기(2003)는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월드컵 외국인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4]. 문화이벤트에서의 산업연관분석은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를 높여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한 연구들로는 이희재(2000)는 제3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축제가 안동지역에 52억원의 생산효과와 29억원의 부가가치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5]. 한지훈(2005)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의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6], 최성관(2006)은 안동탈춤페스티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7].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 조사연구[8], 축제의 의미 부여와 의미구조[9], 축제 콘텐츠의 문화원형적 구성요소 연구[10], 그리고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만족이 재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11]등이 있다.

표 1.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지역축제 분석

연구자	연구목적 및 내용	모 형 작성법
이희재 (2000)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관표
최성관 (2006)	• 지역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표
이충기 외2 (2008)	• 풍기인삼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지역산업연관표
이충기 외2 (2008)	•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직접조사법
이지석 외1 (2008)	•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표
김한주 (2009)	•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북권과 타권역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지역산업연관표
김한주 외1 (2009)	•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음식업의 경제적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표
주수현 외2 (2009)	•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산 비엔날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다지역산업연관표
이강욱 (2009)	•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관표

자료: 저자 작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이 대규모 투자와 방문객이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이 필요하다. [표 1]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산업연관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입지계수법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추계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닌 지역자료를 획득하기 어렵다. 최근 한국은행(2009)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접추계방식을 사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한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의 이러한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12].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국제행사(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사례)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로 한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문의 배분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처럼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되는 것이 전국산업연관표와 다르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에 포함되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내 총산출액이 된다[13].

1.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제하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부재료 및 연료 등 중간투입액과 피용자보수 및 영업인여 등 부가가치를 그 산업부문의 총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나타내며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중간투입계수와 부가가치를 총투입액으로 나눈 부가가치계수로 구분된다.

표 2. 지역간 산업연관표와 지역간 투입계수표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지역 2	지역 1	지역 2	
국산 투입	지역 1	Z_{11}	Z_{12}	Y_{11}^d	Y_{12}^d	X_1
	지역 2	Z_{21}	Z_{22}	Y_{21}^d	Y_{22}^d	X_2
수입투입		M_1	M_2	Y_1^m	Y_2^m	
부가가치		V_1	V_2			
지역내 산출액		X_1	X_2			

		중간수요	
		지역 1	지역 2
국산 투입	지역 1	A_{11}^d	A_{12}^d
	지역 2	A_{21}^d	A_{22}^d
수입투입		A_1^m	A_1^m
부가가치		A_1^v	A_2^v
지역내 산출액		1	1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09, p.12.

2. 생산유발계수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생산에 투입한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지역 및 산업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한 매개변수로 이용된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Z)와 최종수요(Y)로 배분되는데 [표 2]과 같이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Z_{11} + Z_{12} + Y_{11}^d + Y_{12}^d = X_1$$

$$Z_{21} + Z_{22} + Y_{21}^d + Y_{22}^d = X_2$$

이 수급방정식은 투입계수($A_{ij} = Z_{ij}/X_j$)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된다.

$$A_{11}^d X_1 + A_{12}^d X_2 + Y_{11}^d + Y_{12}^d = X_1$$

$$A_{21}^d X_1 + A_{22}^d X_2 + Y_{21}^d + Y_{22}^d = X_2$$

투입계수로 된 수급방정식을 행렬 형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A^d X + Y^d = X \quad (\text{단, } Y_1^d = Y_{11}^d + Y_{12}^d, Y_2^d = Y_{21}^d + Y_{22}^d)$$

이 수급방정식 $A^d X + Y^d = X$ 를 산출액 X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d X + Y^d = X$$

$$(I - A^d)X = Y^d$$

$$X = (I - A^d)^{-1} Y^d$$

(A^d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X 는 총산출액 벡터, Y^d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I 는 단위행렬)

위 식에서 $(I - A^d)^{-1}$ 를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는데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규모를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가 역행렬로 되어 있어 역행렬계수 또는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은 부가가치, 수입 및 고용유발효과를 도출하는데 기초가 된다.

IV.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행사규모

1.1 행사경비규모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7년 시작되어 6년 연속 최우수축제, 그리고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받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의 세입규모는 약 32억원으로 2006년 25억원 보다 31% 증가하였고, 2007년 23억원보다 43% 정도 증가했다. 축제 세입을 살펴보면, 보조금(국·도비, 안동시)은 19억 6천만원, 입장권 판매 1억 9천만원, 상가분양 2억원, 휘장사업 2억원, 행사지원금 9백만원, 기타 6억 8천만원이다.

그리고 탈춤페스티벌의 세출내역은 25억원으로 전년 에 비해 49% 증가하였다. 2007년 축제는 5억 6천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2008년 축제에서는 그보다 22% 증가한

6억 9천만원의 이익을 냈다. 세출규모를 항목별로 살펴 보면, 외국공연단의 초청과 관련한 비용은 2004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2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국내공연단 비용은 1억원이었다. 탈춤페스티벌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외국공연단 지출비중이 국내공연단에 대한 지출금액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부대행사 비용은 1억 7천만원, 시설비 5억 2천만원, 관리비 5억원이다. 안동탈춤페스티벌 2009는 신종플루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다.

표 3. 축제의 세입세출 현황(2008년) (단위: 백만원)

세입규모		세출규모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 보조금	1,963.0	• 공연단 초청	334.9
- 국·도비	1,200.0	- 외국공연단	233.5
- 안동시	700.0	- 국내공연단	101.5
• 입장권 판매	195.3	• 부대행사	165.8
- 예 매	78.7	- 주공연장	-
- 주공연장	66.8	- 하회마을	-
- 하회마을	49.8	• 시설비	520.9
• 상가분양	200.9	• 홍보활동비	-
• 휘장사업	199.0	• 관리비	509.1
• 행사지원금	9.2		
• 기 타	677.0		
총 계	3,244.4		2,515.9

자료: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사무처.

1.2 축제 방문객 수와 지출규모

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총 관람객 수는 1,050,100명으로 집계되어, 축제가 개최된 이후 처음으로 방문객의 수가 100만을 넘었다. 이 축제의 주된 축제장인 강변축제장의 방문객 수는 950,320명이었으며, 하회마을 방문객 수는 69,680명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30,100명이었다. 축제장 전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응답자(319명)를 조사한 결과 62명(19.44%)이 안동시민이었고, 257명(80.56%)이 외국인이었다.

표 4. 축제장 방문객 수 조사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지역민	외지인	소계	
합 계	1,050,100	198,245	821,755	1,020,000	30,100
강변축제장	950,320	184,702	765,618	950,320	
하회마을	69,680	13,543	56,137	69,680	

자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처 및 안동시 제공.

설문조사에서 안동시민의 경우 축제장 평균 체류시간은 4.42시간이었고, 외지인의 경우는 평균 4.78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체류시간은 4.6시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류시간을 조정한 축제장 유효방문객 수는 연인원으로 503,478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30,100명이고, 나머지 473,378명은 내국인이었다. 내국인 유효방문객 중 안동시민은 97,039명이고, 외지인은 376,339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5. 체류시간으로 조정한 유효방문객 수 (단위: 명)

구 분	합 계	내 국 인			외국인
		지역민	외지인	소 계	
합 계	503,478	97,039	376,339	473,378	30,100
강변축제장	403,698	83,496	320,202	403,698	
하회마을	69,680	13,543	56,137	69,680	

주: 유효방문객 수는 사무국 공식 방문객 수를 근거로 경제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체류시간과 방문객 집계시간 간격을 고려하여 조정한 추정치임.

2. 경북지역의 산업승수 도출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경우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접 및 간접 생산효과를 나타낸다. 전체 28개 산업부문 중 도소매의 생산유발계수는 1.269307이고 음식점 및 숙박은 1.324484로 관광부문 평균치(1.234423)를 상회하고 있다.

표 6. 경북의 산업별 생산·수입·부가가치유발계수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지역내	타지역	지역내	타지역	지역내	타지역
1.농림수산물	1.235911	0.491713	0.037054	0.085386	0.697994	0.179566
2.광산물	1.283450	0.460750	0.032511	0.115950	0.678319	0.173220
3.음식료품	1.512426	0.565620	0.092351	0.077149	0.596145	0.234355
4.섬유 및 가죽제품	1.341327	0.802041	0.203432	0.147327	0.374037	0.275204
5.목재 및 종이제품	1.288604	0.903597	0.143051	0.163482	0.369848	0.323619
6.인쇄/복제	1.277194	0.719147	0.056489	0.119307	0.557627	0.266577
7.석유 및 석탄제품	1.086756	0.218613	0.747822	0.038585	0.124972	0.088621
8.화학제품	1.212687	0.886468	0.204144	0.182603	0.342412	0.270841
9.비금속 광물제품	1.272406	0.569819	0.153286	0.108032	0.510939	0.227743
10.제1차 금속제품	1.725167	0.583918	0.310474	0.110157	0.384531	0.194838
11.금속제품	1.598895	0.766766	0.130230	0.139108	0.480942	0.249720
12.일반기계	1.458773	0.914486	0.150144	0.140982	0.401675	0.307199

13.전기 및 전자기기	1.247208	0.608253	0.382441	0.101474	0.279155	0.236930
14.정밀기기	1.327506	0.789489	0.192070	0.129668	0.386023	0.292240
15.수송장비	1.445688	1.072367	0.137273	0.169835	0.373847	0.319045
16.기타제조업 제품	1.368807	1.082638	0.148724	0.173486	0.311438	0.366352
17.전력,가스 및 수도	1.205563	0.441988	0.074814	0.074724	0.670143	0.180320
18.건설	1.360159	0.677287	0.077443	0.105613	0.570053	0.246891
19.도소매	1.269307	0.378875	0.033044	0.056338	0.735515	0.175103
20.음식점 및 숙박	1.324484	0.706147	0.065349	0.090804	0.552638	0.291209
21.운수	1.143557	0.519522	0.164326	0.162466	0.484697	0.188511
22.통신/방송	1.315455	0.512158	0.058052	0.049298	0.633596	0.259053
23.금융/보험	1.311020	0.403732	0.038923	0.030643	0.719612	0.210822
24.부동산, 사업서비스	1.178459	0.288544	0.027094	0.032813	0.801856	0.138237
25.공공행정 및 국방	1.217703	0.265199	0.054654	0.039508	0.797474	0.108364
26.교육/보건	1.174797	0.370014	0.032318	0.060570	0.763956	0.143156
27.사회 및 기타서비스	1.347986	0.600257	0.036022	0.090560	0.642830	0.230588
28.기타	1.754501	1.104944	0.115341	0.121877	0.310878	0.451903

자료 :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

수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경우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및 유발 수입효과를 나타낸다. 음식업 및 숙박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065349이고 운수업의 유발계수는 0.164326으로 관광부문 평균인 0.051047을 상회하고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했을 경우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및 유발 부가가치효과를 나타낸다.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35515는 관광부문 평균인 0.695318 보다 높다.

3. 방문객 수의 추정과 지출규모

축제장의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을 체류일수로 나누어 거주지별 방문객 1인 1일 평균지출액을 도출하였다. 축제기간중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가운데 안동시민은 1인 1일 평균 18,721원을 지역내에서 지출하였고, 외지인은 51,759원을, 외국인은 68,067원을 지역내에서 지출하였다.

표 7. 축제 방문객의 1인 1일 평균지출액

항 목	내 국 인		외국인
	지역민	외지인	
식음료비(식사, 술값, 음료수등)	6,508	10,638	21,417
현지교통비(주유소기름값, 버스, 택시등)	2,526	5,372	7,975
쇼핑비(특산물, 축제기념품 등)	3,729	7,712	14,823
숙박비(축제 때문에 숙박한 경우)	892	10,903	12,088
유형비(노래방, 놀이시설 등 구매)	1,425	11,849	4,616
기타(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비용)	849	1,632	712
입장료	2,792	3,653	6,436
1인 1일 평균지출액	18,721	51,759	68,067

자료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처 및 안동시 제공.

축제방문객 1인 1일 평균지출액 중 안동지역으로 유입된 부분만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 축제 방문객에 의한 지역내 총지출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축제장 방문객에 의한 지역내 총지출액의 합계는 233억 4천만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전년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한 지역내 총지출액(164억 2천만원)에 비하여 42% 증가한 금액이다.

표 8. 축제 방문객의 총지출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내 국 인			외국인	합 계
	지역민	외지인	소 계		
유형방문객수	97,039	376,339	473,378	30,100	503,478
1인 1일 평균지출액	18,721	51,759	-	68,067	-
지출액합계	1,816,667	19,478,930	21,295,597	2,048,817	23,344,414

주 1) 지출액 합계는 지출항목별 1인 1일 평균지출액에 축제장(유형)방문객 수를 곱하여 계산함.

주 2) 입장료지출은 경제파급효과 계산에서는 축제예산지출에 포함.

4. 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경북지역의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그리고 부가가치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동안 방문객의 총 지출액인 237억 5천만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09억 6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수입유발효과는 1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입지계수법에 의해 지역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총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 조사연구’ (최성관 외2, 2008:17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37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59억 6천만원, 소득유발효과는 129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식 통계자료마다 분류방식이 다르고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09)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좀 더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단위 : 천원)

산업별	지출액	총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파급	수입파급	부가가치 파급
농림수산물	2,947	3,642	109	2,057
음식료품	9,489	14,351	876	5,567
섬유/가죽제품	35,132	47,124	7,167	13,141
목재/종이제품	17,964	23,148	2,570	6,644
인쇄 및 복제	140,316	179,211	7,926	78,244
석유/석탄제품	1,965	2,135	1,469	246
화학제품	21,638	26,240	4,417	7,409
비금속광물제품	12,000	15,269	1,839	6,131
금속제품	8,538	13,651	1,112	4,106
일반기계	15,122	22,060	2,270	6,074
전기/전자기기	138,392	172,604	52,927	38,633
정밀기기	7,138	9,476	1,371	2,755
수송장비	5,310	7,677	729	1,985
기타제조업제품	95,572	130,820	14,214	29,765
전력,가스/수도	14,631	17,639	1,095	9,805
건설	42,581	57,917	3,298	24,273
도소매	4,456,902	5,657,177	147,274	3,278,118
음식점 및 숙박	9,973,374	13,209,574	651,750	5,511,665
운수	2,575,391	2,945,106	423,204	1,248,284
통신 및 방송	15,659	20,599	909	9,921
금융 및 보험	35,792	46,924	1,393	25,756
부동산,사업 서비스	635,268	748,637	17,212	509,393
공공행정/국방	738	899	40	589
교육 및 보건	23,636	27,768	764	18,057
사회/기타서비스	5,001,412	6,741,833	180,161	3,215,058
기타	467,565	820,343	53,929	255,027
총 합계	23,754,472	30,961,824	1,580,025	14,308,703

주: 지출액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년 조사연구’, p.172 활용.

V. 결론 및 시사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경쟁적으로 생겨난 유사한 지역축제의 기획은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역축제를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축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의 기획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0월에 열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기존의 전국산업연관모델보다는 경북지역의 생산구조나 교역상태를 반영하는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2009)의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발표한 경북지역의 생산·수입·부가가치유발계수를 활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지역축제가 안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09억 6천만원, 수입유발효과는 1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정확도를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안동탈춤페스티벌은 ‘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국제적인 축제로 부각시킨 결과,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로 6회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2회에 선정되었다. 따라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축제의 개념적 측면에서 분명하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유산인 ‘탈’이라는 컨셉을 잘 살린 축제의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지역축제의 수요자들의 수요니즈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축제기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D. Getz,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1.

- [2] 야은숙, “민속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 방안연구”, 여행학연구, 제6호, pp.153-178, 1997.
- [3] 이충기, 서태양, 박중구,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관광연구, 제23권, 제1호, pp.63-79, 2008.
- [4] 이충기, “월드컵 외국인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26권, 제4호, pp.11-26, 2003.
- [5] 이희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동개발연구, 제11집, pp.153-185, 2000.
- [6] 한지훈,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의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7] 최성관, “지역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pp.19-40, 2006.
- [8] 최성관, 배만규, 전영록, 권오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2008-1,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08.
- [9] 오정근, “축제의 의미부여와 의미구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0] 이정재, “축제 콘텐츠의 문화원형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2008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1] 이재만,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만족이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pp.370-379, 2009.
- [12]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
- [13]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9.

저 자 소 개

이 지 석(Ji-Seok Lee)

정회원



- 1991년 : 영남대학교 상학사
- 1993년 : 영남대학교 경제학석사
- 2000년 : 영남대학교 경제학박사
- 현재 :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국제통상, 무역전시회, 컨벤션산업